

since 1986

# SUNBO FAMILY

2011년 7월 15일 해방 및 육상모를 전문 조우량 상장기업

vol. 90 2011년 7월 15일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이머텍(주)

홈페이지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261-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 출 항상 왕각하여 화선을 다하자

## 창립 제25주년, 모두가 선보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



### 명품모를생산과 사업다각화를 필두로 한 제3의 창업 선언 우수 사원 표창과 연극 단체관람도 이어져

지난 7월 15일 우리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독산 교육장에서 '제25주년 창립기념 일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 외주소장,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기념일 행사와 더불어 제

3의 창업 정신을 통하여 선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과 단결의 의지를 다졌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3의 창업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령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강조를 했다. 첫째, 명품 모를을 생산 스텝에 최적화한 작업환경조성과 무재해 작업장 실현, 기존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생산오차 및 A/S Zero와 △셋째, 사업 다각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회사 발전에 공헌한 우수사원

을 표창하였으며,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수상한 부산 상공회의소장상,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상, 시하구청장상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었다.

#### 대표이사 창립 25주년 기념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렵고 슬픈 여름철이 날의 속에 폭우처럼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보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무렵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선보가 지난 25년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선보 전 가족의 단결과 굳은 의지로 극복하고 이겨내어 오늘에 선보를 건설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보와 함께 슬픔과 기쁨, 아픔과 행복을 함께한 전 임직원과 사내외 협력사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무렵게 성장하면 조선산업은 300%의 이후 총체적 불황과 위기 속이 빠져 있습니다. '신이 필요할 때가 길다'는 말이 있듯이 10년 이상 장기 성장을 해오던 조선 산업이 어느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는 날이 언제일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과 같은 호황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기상황도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무리하게 통화 유통성을 팽창시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를 누렸으나 지금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유통성 회수에 따른 경제 전체가 다시 재연되는 데를 면하기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경쟁의 패자로 각국의 정부들이 혼란에 빠져가고 특히 그리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불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선산업은 세계 각국이 만만찮은 산업 하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 조선산업이 침체되는 것은 지금 상황은 관용하기가 어려운 참예의 여지를 벗어 나기도 전에 새로운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업은행을 신청한 상호조선은 비롯하여 많은 중, 소형 조선소들이 무렵고, 은행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형 조선소들도 건국정당에 몰입하고 해일플랜트, 공백업선 설비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 부주와 선별의 수주로 선사업 분야에 매출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조선산업의 비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경영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보가족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창립제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보가족의 제 3의 창업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보는 1986년 8월 '남원공업' 합업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금' 선보공업(주)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제3의 창업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선보가족들의 노력과 인내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라미 보이 지 않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하고 성장해 왔던 모든 기업을 단거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2B/2C/B2B에서 세마를 새 뜻으로 화약의 위기 상황에서 제3의 선보를 만들어 갑시다.

지난 25년간 만들어 온 Module Unit를 장인 정신이 깃든 명품 Module Unit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품이라도 알릴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품 제품들은 우수한 품질은 기본이고 정통의 장인정신에서 나오는 우수한 디자인과 예술성, 실용성까지 겸비하여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과 공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보도 지난 25년간 Module Unit를 만들어 왔고 어느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Module Unit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3대 목표를 반드시 실천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 보건, 환경의 준수와 실천입니다. 안전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키고 달성해야 할 가장 기본 항목이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불안요소 제거, 안전수칙 준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무재해사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또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까지도 선보의 책임으로 인해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보건의 건강관리는 회사 스스로의 실천과 노력의 가장 필요로 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금연운동, 동호회 활동 참여 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말이 있듯 회사의 건강을 진 모를로써 적극 참여하고, 개인의 위생과 건강관

리해 철저하게 관리,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차 Zero입니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많은 오차를 경험했고 지금도 수없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오차로 인해 우리는 고객으로 부터 많은 질의와 긍정적인 보상을 받았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간에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생산해 냈습니다. 설계오차이든 생산오차이든 나의 공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 공정 동료들 생각한다면 오차는 반드시 근절 될 것입니다. 오차 zero화의 달성은 우리 모두의 갈등해소와 원하며, 명품 Module Unit생산의 지름길입니다.

셋째는 보급율 100% 달성입니다. 한때 우리는 자체 보급율이 96%까지 올라갔었으나 지금은 6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체 입고 지연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할이작업과 휴일 근무가 계속되고 있고 입고에 급급하다보니 품질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선공과 후공공간의 작업기간 확보는 우리 품질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일체 대한 품질과 기밀업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상의 '3대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선보는 100% 조선산업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품 Item이 있어서도 본 변화없이 지난 25년을 흘러왔습니다. 이제 제 3의 창업시대를 맞이하여 사업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준비해온 해양물류사업이 수주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고, 영업, 기술, 품질, 생산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뛰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개발중인 신제품의 성공적 개발과 사업화는 우리 선보의 미래를 책임질 Item들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Item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해양사업과 신제품개발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로 살아남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성과와 효율을 창출시켜야 하며, 미래를 위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절실히 필요해 합니다. 우리 모두 승자가 되고 보람과 희망이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십시다.

무렵위와 정미은 악형후의 날씨가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선보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정에는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창립 기념 연극 '라이어3' 단체관람 사원 및 가족 등 약 300명 함께 즐겨



지난 1일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고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연극 '라이어3' 단체관람 행사를 가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조운극장 1관을 대관했으며, 사원 및 가족, 사내협력사사원들이 한데 모여 잠시나마 업무에 대한 피로도 해소하고 가족들과 문화생활을 함께 즐겼다.

연극을 관람한 한 사원은 "행복 일하는 직원끼리 업무상으로는 부디칠 일이 많았는데 같이 즐거운 공연을 보게 되어 그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 3대 중점 추진항목 실천결의대회 - 제3의 창업 위한 의지 다져

우리 회사는 지난 1일 창립기념일에 "명품모듈 생산"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날로 격화되는 조선 산업계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전사결의대회 및 부문결의대회를 열어 제3의 창업 성공을 위해 3대 중점 추진항목을 내걸고 전사적 차원에서 이를 알리는 동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3대 중점 추진항목 실천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는 본사 교육장에서 이뤄졌으며 전사 결의문, 부서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제3의 창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3대 중점 추진 항목은 △첫째, 명품 모듈



을 생산 △둘째,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무재해 작업장 실현, 기존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생산오차 및 A/S Zero화 △셋째, 사업 다각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실

천항목에 맞게 부서별로 세분화 되어 시행된다.

한편, 경영지원부품은 부문결의대회가 끝난 후 목표달성을 위한산행이 진행됐다.

우천 속에서 강행된 이번 산행은 2공장 후문을 출발하여 봉수대에서 기념 사진 촬영 후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으로 이어지는 산행을 실시 하였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 우리 회사 신입사원 맞아... 선보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 - 신입사원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일을 기해 신입사원 7명을 맞이했다.

신입사원들은 이날부터 선보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본 소양 및 일체감 형성 등을 교육받으며 또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각각 직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신입사원들은 우리 회사 일사 각오를 다음과 같이 다졌다. 먼저 ① 박기태(개발1팀 대리) 사원은 "일에 최선을 다 하면서 또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다졌고, ② 김중신(안전환경팀 대리대우) 사원은 "빠른 적응력으로 최단기간에 인정받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③ 정성욱(자재조달팀 계장) 사원은 "최대한 회사에 빨리 적응하여 선보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④ 전만석(안전환경팀 4급사원) 사원은 "최선을 다하여 선보공원이 더욱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⑤ 유시욱(설계6팀 계장) 사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선보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며 ⑥ 김도훈(해양설계팀 계장) 사원은 "현장과 직장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을 토대로 회사의 발전과 저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대리로 발령난 ⑦ AMIT(이미트)는 "선보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해양엔지니어링과 회사에서 요청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Life 좋은 말

### 혁신은 습관의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습관(習慣).

사전적 정의로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고 굳어진 행동 또는 처우 처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을 뜻한다. 여기서 후자의 의미가 더욱 주목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습관이란 이미 자신과 하나 돼 일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간에 말이다.

일례로 미국 이민자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가운데는 호주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미국과 호주는 교통체계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특별히 호주인들에게는 까다로운 라이선스 기준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습을 통해서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예로 개구리를 그곳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물은도가 뜨거워 지는 것을 인지하지만 뛰쳐나오지 않아 삶겨 죽고 만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다면 바로 탈출하여 살게 된다. 우리도 과거의 타성의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혁신과 변화는 원래 즐거워야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있어도 습관에 의해 한계에 부딪혀 그 벽을 깨뜨리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혁신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이유다.  
경영혁신과 자기혁신을 동시에 실천해 가며 변화를 도모한다면 내부에서 깨지지 않는 틀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바로 변화를 즐기는 데서 비롯된다. 이번 제3의 창업이 그곳된 습관의 고착화로부터 탈피하고 혁신을 통해 사업발전과 동시에 사원들에게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이 미래를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Life 추천여행지



## 보고만지고 즐기는 과학! LG사이언스홀

매주 아이들과 어디를 갈까 고민을 거듭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친구 연지동여위치한 'LG사이언스홀'을 한번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2군데밖에 없는데다 볼거리, 즐길거리로 풍성한 곳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LG사이언스홀은 LG가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세계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 과학관이다. 총 8개의 테마로 구성된 LG사이언스홀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올해로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해 그 인기가 대단하다.

단,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사전예약이 없이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해두어야 한다. 인터넷

이나 전화로 2주전에는 꼭 예약을 해야 체험이 가능하다.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한 번 방문해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매회 약 2시간의 마라에너지, 생명과학, 사이언스 매직, 현대 기술, 입체영상관 체험으로 진행되며, 체험이 끝난 후에는 어려운 과학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LG사이언스홀 홈페이지

(<http://www.lgscience.co.kr>)나 전화(051)908-3600)로 문의하면 된다.

곧 다가올 아이들의 방학에 재미도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LG사이언스홀! 지금 바로 예약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추천한다.

## Life 식중독

## 여름철 잦은 식중독, 예방이 최선의 치료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하고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

해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준수, 조리용 기구 등은 사용 후 세척·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일명 식중독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80% 이상 발생한다. 신선한 야채에는 관습적인 등식도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낫 동안 상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설사에 오심,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높은 기온에 오랫동안 노출된 음식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항상 청결한 식재료로 요리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더라도 오래된 것은 피하며 날로 먹는 것 보다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중독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해 철저한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만일 발열과 함께 복통이 있거나 주변에 동일 음식을 섭취하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한다.

한편, 동시대 의료원 가정의학과에서는 "일상생활질환들은 대부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질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 스스로에게는 철저히, 고객에게는 만족을! 서한공업

본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한공업은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년 3월 시작하여 선보와는 3년째 연을 이어가고 있다.

선보는 서한공업의 주 협력업체로서 매출액의 16%라고 한다. 방성택 SG사업부 이사는 "선보와 일하는 것

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고, 납기일 준수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긴급으로 요청되는 물품들이 많고 도금업의 특성상 서한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주·이간할 것 없이 공장이 가동된다.

방성택으로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안전이고 다음으로 중요

한 것이 작업환경이라고 한다. 환경, 안전, 시정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해야 고객이 만족하는 작업을 이 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환경의 청결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쓴다고.. 그결과 2006년 도금업체 최초로 플린사업장 인정을 획득하기도 했다. 방성택 이사는 "한 일 본기업에서 업무차 공장을 둘러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청결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용, 성실'을 사표로 이를 지키기 위해 서한은 납기일 준수와 불량Zero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고객이 만족하는 순간



이 비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할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한다고..

방성택 이사는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선보의 물량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사업적 연을 이어나갔으면 한다"면서 "철저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un SUNBO Run **열심 헌장의 소리**



영도공장 **유재걸** 팀장

"원차타며,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의미의 사자상이다. 이 사자상을 끄어 올 때는 이번도 생산현장의 소리의

**열심히 이 자리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주인공 유재걸 팀장과 인터뷰하면서 느낀 기저의 소리가 어느정도 적용됐다. 인터뷰를 위해 처음 만난 그의 얼굴에는 피소가 번져있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매력에 있었다.

유재걸 팀장은 2006년 인사해 현재는 전처리, 도장파트를 관리하는 팀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팀원 약300명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소울'이라고 한다. 그는 팀장이지만 팀원들보다 나이가 어려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수직관계보다는 수평관계를 중시한다.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업무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려 한다"며 팀장이지만 많이 배우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협력 고민해나가는가 하면 팀원들의 그날 그날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한다.

다. 그런 그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도공장에 팀원들이 편히 쉬 수 있는 휴게시설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휴게시설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작업장 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도 있어 안전에도 신경이 쓰인다고...

유재걸 팀장의 좌우명이 바로 "잘 때는 확! 잘 때는 꼭!"이란다. 원래 군대에 있을 때 부대 구호였는데 지금에서야 이 구호의 의미가 여실히 와닿는다고.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좌우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했다.

그에게 있어 애로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유 팀장은 "공정을 짜는 것은 언제나 힘든 것 같다. 특히나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욱

힘들다"고 했다. "모든 공정의 마지막이다 보니 납기일은 정해져 있는데 앞선 단계에서 밀려야 될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렇게 힘든 만큼 결과물이 제 시간 안에 나왔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유재걸 팀장에게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박현일 대리를 지목하며 "항상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함께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준 유재걸 팀장. 아직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하는 그는 오늘도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un SUNBO Run **강장 열매**



다대공공장 **강동주** 팀장

이번호 청년리더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어안이 방방하네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뽑히게 된 영문을 몰라 속스럽기만 하네요.(웃음)리 무척 오랜 기간 선보에서 일하다보

**^^웃으면 복이 와요.**

니 뽑아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해 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 등 선보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선보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3공장에서 용접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올해로 19년째 되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일하다보니 세월이 가져다 준 노하우가 생겨 이제는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젊을 때와는 달리 체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Q 팀장으로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웃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웃는 얼굴에는 힘

도 못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도 마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된다'는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함께 일하는 데 있어 불평, 불만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에게 웃으며 일하자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선보에서 일해오면서 많은 후배 선보인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선보처럼 사장님께서 세심하게 일일이 챙겨주시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집안대소사까지 신경써주실 만큼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우리 모두 나 혼자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두가 함께 도와가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기특성을 과하게 부리는 것보다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선보Family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필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된 과정의 '늘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공장**  
 생계팀 최우호(7/1)  
 기획팀 장성민(7/23)  
 설계팀 강준호(7/8)  
 1공장 김현민(7/4), 장세원(8/25), 이진우(7/2), 홍성재(7/23), 박영규(7/1), 한진우(8/11), 홍현문(8/25), 김병규(8/24), 권영남(7/18), 김승기(7/21)  
 품질팀 박승우(8/24)  
 생산부 김창기(7/3), 박영호(8/14), 최진표(8/24)  
**구명공공장**  
 생산인원 김민(7/13)  
 해당설계 인종환(7/13), 유시훈(7/30)  
 생산부 주영환(7/2), 윤민호(7/18), 홍인성(7/15), 권영규(7/23), 이상욱(7/23), 유성운(7/13), 권영호(7/23), 김태규(7/7)  
**영도공공장**  
 일반팀 김진우(7/27)  
 공정팀 미상우(7/8)  
 해당생산인원 최용현(7/23), 김지현(7/23), 신다영(7/23), 김태영(7/23)

**입사기념일**

**다대공공장**  
 일반팀 사재우(7/27)  
 차차팀 송정우(7/1), 김재민(7/3)  
 품질팀 박용현(7/1)  
 설계팀 오승민(7/18)  
 기술연구팀 문준영(7/3)  
 고객지원팀 신성남(7/3)  
 1공장 이상진(7/3)  
 2공장 최준호(7/1), 임철우(7/27)  
 3공장 최영민(7/23), 임수현(7/14)  
**구명공공장**  
 해당인원 이주호(7/24)  
 설계팀 이종환(7/2), 윤지현(7/18)  
 설계팀 미상우(7/8)  
**영도공공장**  
 공정팀 이진우(7/2)